생산성 향상, 양돈인 의식구조 변혁이 더 중요

조 광 호 교수
(전남대 농과대학)

1. 머리말

우리와 사육여건이 비슷한 대만이 많은 양을 수출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양돈은 투기가 아니며 산업이다. 적정이윤을 추구하며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면 우리 양돈은 국제경쟁 대열에 나설 수 있다.

수입개방에다 노동력 부족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에 무허가 돈사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대두되면서 앞으로 돈가마저 불안하게 하니 양돈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양돈은 몇번의 가격파동을 겪어 오긴 했으나 비교적 안일(전부는 아니지만)하게 경영해 왔다. 즉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비교적 값싼 노동력에 시세만 맞추면 수익도 타농업에 비해 낮지 않았다.

돼지가격이 좋을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양돈에 문외한인 사람들마저 돼지를 사육하겠다고 나섰고, 상당한 기업도 돼지키워 돈 벌겠다고 투자했다. 그러다가 돼지가격이 떨어지면(과잉생산으로)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 대고 정부에 대책을 세워 달라고 졸라댔다. 그동안 육류등급제마저 없었으니 돈가가 높으면 육성돈 사료로 비육후기까지 비육시켜 시장에 출하하였고 생산비 절감보다는 돈가가 얼마냐에 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여러 어려움이 닥쳐오니 못하겠다고 걱정을 하나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살길을 찾을 것인가?

2. 그동안의 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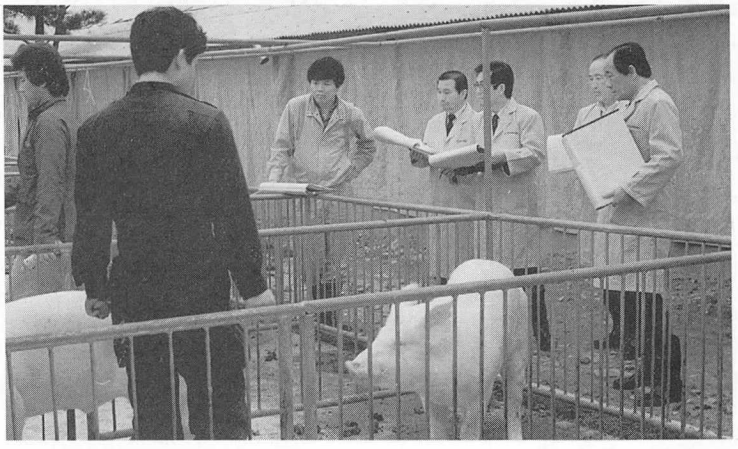
과거 20여년 동안 우리 양돈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왔다. 이유자돈도 늘었고, 사료효율도, 사육능력도 향상되는 등 사육기술이 크게 향상되었고, 호당 사육규모도 크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분뇨처리 등에 큰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다른 산업부문도 마찬가지지만)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힘들다고 하나, 근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양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웃집 분뇨가 우리 집으로 흐르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동안은 서로 이해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서로 지킬 것은 지키며 사는 것이 함께 사는 사회이지 않는가?

또한 비교적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여 양돈을 하다 보니 시설이나 환경개선보다는 당장 돼지 키워 돈 버는 데만 관심을 쓰다가 사람 구하기 힘들고 노임이 비싸 못하겠다니 그동안 돈벌어 어디에 투자했는가?

물론 규모를 늘리고 시설을 개선한 사람도 많으나, 상당수는 부동산 투자에 더 관심 쓰지는 않았는지? 소득수준이 오르고 시대가 바뀌니 일할 사람이 없어 큰일 났다고 하나,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시설개선한 농가와 가족노동력 중심으로 경영하는 농가는 문제가 없지 않은가?

돈사문제도 그렇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양돈을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양돈하면 돈 번다고 하여 간이돈사부터 짓고 돼지 넣어 기르다 문제가 되어 벌



금내고 시설개선자금 지원혜택도 못 받아 억울하다고 한다.

이것 저것 제대로 다 갖추면 양돈해서 돈벌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상당수 농가는 제대로 절차 밟아 돈사 짓고 폐수처리시설해서도 양돈해서 돈벌고 있지 않은가(물론 제대로 않은 것보다 돈벌이야 적겠지만 그것보다는 규범을 지키는 사회가 올바르지 않을까)? 그동안 비정상인 것을 정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 오지는 않았던가?

3. 생산비 절감보다 돈가에 관심

연구차 농가조사를 다니다 보면 공통된 내용을 자주 듣게 된다. 즉 돈가가 내려가 있을 때 수익성의 비교는 정상가격과 비교해야 하는 데도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랐던 호황기와 현재의 시세를 비교하며, 그때보다 얼마나 손해보고 있다고 말한다.

양돈이 투기 산업인가? 그렇지 않다면 정상가격(생산비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에 비해 현재 시세가 어떻다고 비교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또한 양돈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 생산비 절감 아무리 해봐야 돈가가 떨어지면 헛일이니 가격이 안정되어야지 생산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어느 부문은 타당할지 모르

나 생산비를 낮추면 가격이 낮아져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적다는 느낌이 들며, 합리적 경영보다는 시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를 원망하는 습성이 있다. 물론 가격정보에 맞춰 생산을 하는 것이 경영의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도외시하면 실패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 먼저 생산비를 낮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시세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4. 언제까지 정부에만 의존할 것인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돼지가격이 낮아지면 정부를 원망하고 정부에서 수매, 비축 등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정부에서도 정확한 수급조절과 유통정책을 세워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을 방지하고 상품이 원활히 흐르도록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격의 하락은 과잉공급에 기인하므로 생산자 스스로 수급을 조절할 수는 없는가? 생산자 단체(축협, 양돈협회, 조합 등)를 중심으로 사육두수를 스스로 조절하고, 상인과 대결하기 위해 자체 판매점(최근 일부 실시하고 있음)을 내고, 가공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가? 지역단위 생산자 단체에서 자체 브랜드로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정부 의존적이었고 자체 해결의 노력은 적었다고 본다. 이제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때이다. 자조금을 모아 연구비로, 홍보비로, 신제품 개발비로, 가공공장 설립비로, 수출보조금으로 이용 할 수는 없는가?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하다가도 가격이 오르면 수출용을 국내에 팔아버리니, 어느 누가 우리를 믿고 우리 것을 수입하려 할 것인가? 당장의 이익보다 좀더 멀리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다.

우리보다 사육여건이 크게 유리하지 않은 대만, 덴마크 등은 일본에 많은 양을 수출하는데, 거리로 보아 훨씬 유리한 우리는 일본에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였던가?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돼지가격 하락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일어난다. 이때 초과된 공급량을 빨리 소비토록 하려면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떨어져 주거나 홍보가 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지가격은 떨어졌어도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 과잉공급분이 바로 소비되지 않아 불황이 계속된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에서 유통개선을 해야 하겠지만 생산자 단체는 무엇을 하였던가, 직영점을 통해 값싸게 공급하며 상인과 대결해 본 일이 있는가, 홍보를 얼마나 체계있게 수행해 본 일이 있는가?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먼저 찾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은 가능한가?

현대를 국제화시대라고 흔히들 말한다. 어디서나 양담배를 피울 수 있고 백화점엔 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때 돼지고기만은 우리 것을 먹자고 외쳐봤자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호응할 것인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 좋고 값싼 우리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것을 먹어달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복당 출하두수, 산육능력, 년간 모돈 회전수 등)와 생산비의 주요항목인 사료비와 노력비 절감에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생산성 증대에서는 우량모돈과 사양기술 개선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평균 모돈 1두당 이유자돈수 17.7두('90년 기준)는 양돈 선진국의 20두 이상과 비교할 때 크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일당증체량 등 산육능력면에서도 대부분의 농가가 낮은 수준에 있다. 이는 보온이나 환기의 소홀에서도 영향하는 것 같았다.

생산비중 가장 비중이 큰 사료비와 노력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육단계별 사료급이, 최근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습식급이(wet feed)와 사료허실 방지에 노력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자동화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생산비와 관련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위해서는 가족단위 사육규모인 모돈 50－100두(상시사육 두수 500－1,000두) 규모까지 확대해야 하며(이는 자동화 시설 도입과도 관련이 있음), 관리인에 의한 사육보다는 경영주가 직접 사육하여야 한다(이는 타당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관리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노임이 비싸며, 직접 관리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많았음).

여기서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양관리(번식, 질병, 사료, 판매, 작업, 관리 등)를 전산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개 컴퓨터라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최근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양돈관리 프로그램들은 한글화 되어서 한글을 읽을 줄 알면 간단히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컴퓨터 가격 역시 크게 낮아져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기를 권하고 싶다. 이는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야 하며, 이들 기록을 분석하여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반성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 과학 영농의 첫걸음은 기록에서부터 시작한다. 대개의 양돈인들이 사료비와 돼지가격에 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록을 통해 경영을 개선(경영진단)하는자세가 필요하다.

6. 맺음말

국제화 시대의 양돈은 과거처럼 양돈 가격이 상승하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세계의 양돈인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가격이 높으면 외국의 것이 국내에 들어오고, 외국의 가격이 높으면 국내의 돼지가 외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비를 얼마나 낮출 수 있으냐에 대한 싸움이며, 여기서 지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돼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여도 경영관리의 합리화로 생산비를 낮춘 농가는 살아남을 수 있거나 일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와 사육여건이 비슷한 대만이 많은 양을 수출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양돈은 투기가 아니며 산업이다. 적정이윤을 추구하며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면 우리 양돈은 국제경쟁 대열에 나설 수 있다. 그동안의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과감히 기술과 경영개선에 노력해야 할 때이다.

또한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상인과 대결하고, 정부와 협상하며, 스스로 공급량을 조절하는 자구적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개별 농민이 할 수 없는 것은 조직의 힘을 빌어 이룩하고, 개개농민이 모르는 내용은 생산자 단체에서 연구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환기오염대책, 생산성 및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는 것도 생산자 단체의 할 일이다.